



기후변화

Climate Change

2023
APRIL

Table of Contents

Are You Aware of Climate Change? 당신은 기후 변화를 인지하고 있습니까?	1
Climate Change: in Korea 한국의 기후변화	2
All about Climate Change 데이터로 살펴보는 기후변화	3-4
Glob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책	5-7
Individual Action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맞서는 개인적 행동	8
Discussion	9-12
Relevant Articles	13-14
Bibliographical Entries	15-16

April 2023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4월 5일: 식목일
4월 22일: 지구의 날

사진 출처: 위즈덤아고라 김윤지



Climate Change: Are You Aware of Climate Change?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는
무관심으로 해결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더워지고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례없는
폭염

2021년 폭염,
미국 146명,
캐나다 719명 사망

19-20 호주 산불
피해면적,
약 1020만ha

증가하는
산불 피해

멈추지 않는
폭우

2022년
남아공 홍수,
최소 259명 사망

세계는 물론 대한민국 역시 지구온난화로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를 겪고 있다.



사진출처: Canva

보다 이른 벚꽃의 개화

지난 2023년 3월 25일 서울의 첫 벚꽃이 개화했다. 이는 작년보다 10일 더 빠르고, 평년보다 14일 빠른 개화이다. 그 원인으로는 작년보다 3월 평균 기온이 약 1.7°C 높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평균 온도 상승으로부터 앞으로 더 빨라질 개화는 더욱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강력한 폭우와 강수량의 변화

2022년 8월 서울시에 1시간에 최대 141.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찾아왔다. 당시 '물폭탄'에 가까운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최소 8명이 사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도심 곳곳에 위치한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반지하 주택 등의 지하공간에서 큰 피해가 나타났다. 기상청은 2023년 2월, 올해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50%의 확률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아직 어떠한 변수로 인한 기후 피해가 한반도를 덮칠지는 단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2년 대한민국의 이상기후 브리핑

그 외에도 7년 연속 9월에 태풍이 발생하고 있으며, 남부지방에는 1974년 이후 가장 많은 가뭄이 발생했다. 4월 중하순에는 초여름 수준의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했고, 11월에는 평균 최고 기온이 역대 최고 수치인 16.5도까지 오르는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대조적으로 초가을 기온 폭은 급격한 하강 수준을 보였으며, 초겨울에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는 등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JIYEON SHIN
위즈덤아고라 5기
마케팅 인턴

사진출처: Canva

All about Climate 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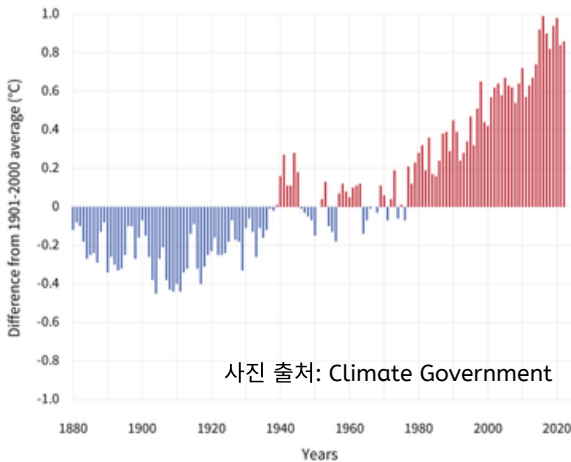
Numerical Data on Climate Change: World

1% VS 50%

세계 인구의 가장 부유한 1%가 가장 가난한 50%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GLOBAL AVERAGE SURFACE TEMPERATURE



2-DEGREE WARMING

지구의 온도가 현재보다 2도 더 상승하면 심각한 가뭄 증가, 짧아지는 추위, 폭우 증가, 물부족 노출 증가, 멸종위기종 비율 증가, 13%의 육지종의 생태계 변화, 해안선 70% 이상 해수면 상승 및 상수도 염분화, 10년에 1번 얼음 없는 극지 여름, 대부분의 산호초 멸종, 식량 안보 감소, 경제적 피해 급증 등 다양한 피해가 우려된다.



10년, 2°F

1880년 이래로 10년에 화씨 약 0.14도씩 상승했다.



10년, 2배

1981년 이후 지구 온난화 속도는 2배 빨라져 10년에 화씨 0.32도씩 상승했다.



10년, since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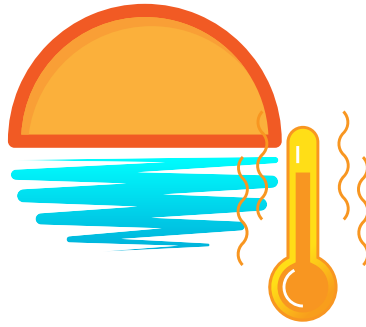
기록상 가장 따뜻한 10년은 모두 2010년 이후 발생했다.

400,000,000

기후 변화로 인해 보건 영역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피해 비용은 2030년까지 연간 약 20-40억 달러로 추정된다.

1 1.6°C

대한민국은 지난 1912-2020년 동안 전 세계 평균인 1.09°C보다 높은 1.6°C의 연평균 기온 상승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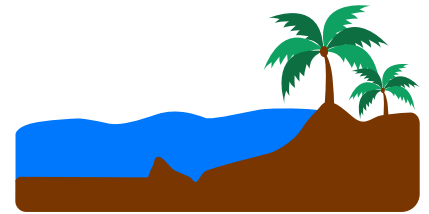
3 2.97mm

대한민국은 1989-2018년 동안 전 세계 평균인 1.7mm의 2배가 넘는 2.97mm의 해수면 상승을 겪었다.



2 1.23°C

대한민국은 1968-2017년 동안 전 세계 평균인 0.48°C를 훨씬 웃도는 1.23°C의 표층 수온 상승을 겪었다.



4 3조 7억 원

대한민국은 지난 2012-2021년 동안 기후변화와 관련된 자연재해로 3조 7억 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겪었다.



6 4~16%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 결과, 21세기 후반 대한민국의 연평균 강수량은 현재보다 4~16% 증가할 것이다.



5 2.3~6.3°C

현재 상황에 기반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해봤을 때, 21세기 후반 대한민국의 연평균 기온은 현재보다 2.3~6.3°C도 상승할 것이다.



한국의 기후변화는 전 세계 평균보다 앞선다.

Glob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YEJIN PARK
위즈덤아고라 5기
마케팅 인턴

지속가능발전과 조직적 대응

지구촌 77억 인구의 60%는 여전히 가난과 질병과 싸우고 있다. 그리고 멈출 수 없는 경제 발전으로 극심한 환경위기에 직면한 지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을 UN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UN 지속가능발전목표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빈곤, 기아, 퇴치,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대응, 육상, 해양오염 저감, 혁신적 기술개발과 경제성장 등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했다.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공동 목표 달성 기여와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 (K-SDGs)를 수립하였다. 5대 전략 중,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 보전을 내세운다.



지구

우리는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추구하고, 지구 천연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시급한 조치를 하는 등 지구를 황폐화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을 결의한다.

사진 출처: the United Nations

환경전략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와 대응
해양생태계 보전
육상생태계 보전

사진 출처: 지속가능발전포털

Glob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YEJIN PARK
위즈덤아고라 5기
마케팅 인턴

2015 COP21 (기후변화총회)

파리 합의문 (Paris Agreement)

신기후변화체제의 근간이 될 합의문이다. 모든 개발도상국이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의 기후 관련 역량 구축을 중점으로 선진국의 지원 강화를 요청하였다.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의 평균 기온을 1.5도 이상의 상승을 제한하고, 2도 이상의 상승을 막기 위해 발효되었다.

195개 당사국이 참여하였으며,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 0을 위해 종료 시점 없이 협약한다.



사진 출처: 위즈덤아고라 차유진

2022 COP27(샤름엘셰이크)

2022년 11월 6일에 열려 18일에 막을 내린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파리협정과 지난 COP26의 목표를 되돌아보았다. 파리협정에서 타결한 지구 온도 1.5도 상승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고, 처음 논의된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 안건도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뜨거운 감자' COP27, 기후위기는 막을 수 있을까

그러나 COP27은 참가국들의 전용기 사용과 지지부진한 서약 달성률로 화두에 올랐다. 위즈덤아고라 4기 이하의 기자의 기사로 자세히 알아보자.

[기사 바로가기](#) →

Market

Glob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YEJIN PARK
위즈덤아고라 5기
마케팅 인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점차 중요해지면서 친환경 소비트렌드도 강화되고 있다. 기업 또한 친환경 제품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전 모델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사용한다. 특히 그린슈머와 ESG 부문에서 친환경 트렌드 영향이 커지고 있다.

사진 출처: CANVA

사진 출처: 위즈덤아고라 김윤지



그린슈머

자연을 상징하는 **그린(green)**과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이다. 세계적으로 친환경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여, 소비재 시장에도 확산되고 있다.

- 1)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비싼 제품 소비 의사
- 2) 제품의 친환경성 고려
- 3) 친환경 경영에 개입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진 출처: 위즈덤아고라 Jessica Li



ESG 경영전략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적인 면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스타벅스의 경우 'From Bean To Cup'으로 커피의 원산지부터 매장까지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Individual Action on Climate Change

지금까지 국제사회와 기업의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YEJIN PARK
위즈덤아고라 5기
마케팅 인턴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탄소중립포인트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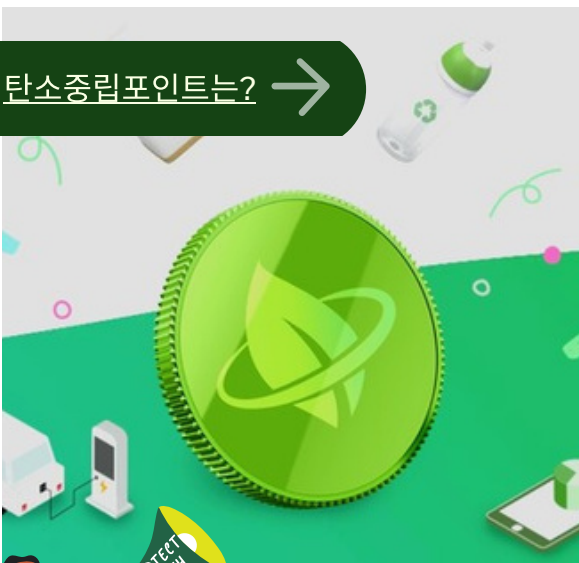


사진 출처: 탄소중립실천포인트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이란?

민간기업의 친환경활동 이용 시 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

참여 방법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누리집 회원가입을 통한 참여 가능

실천 항목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일회용컵 반환 등



욕실에서의 실천✓

양치컵 이용, 샤워 시간 줄이기, 물을 채운 물병 변기 수조에 넣기

중고거래 생활화✓

불필요한 물건 구입하지 않기, 중고거래 앱 이용하여 사용하지 않는 의류, 서적, 가구 되팔거나 나누기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반납✓

종이박스, 아이스팩 등 재활용 포장재 수거 참여

일상생활에서 환경보호 실천



사진 출처: 위즈덤아고라 정현주

ESG 경영: 마케팅 전략인가, '진짜' ESG인가?

ESG 경영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Tariq Fancy(타리크 팬시)와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Laurence Fink(로렌스 핑크)의 의견을 바탕으로 ESG 경영이 정말 환경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살펴보자.

ESG 경영은 아직 '그린워싱'에 불과 Environmental, Social, Greenwashing?

타리크 팬시는 ESG 경영이 지구에 기여하는 것보다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위험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프리미엄 가격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수익률을 자랑하는 ESG 경영은 소비자들에게 기후변화라는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환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ESG 경영은 우리가 누리던 것을 희생하지 않은 채로 변화를 만들어간다는 착각을 주는 것 뿐이다. 따라서, 이런 식의 ESG 경영을 지속하기보다 우리는 비즈니스 담당자들로부터 책임감이라는 '도덕적 망토'를 벗겨내야 한다.



ESG 경영은 환경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



로렌스 핑크는 기업도 장기적인 사회적인 영향에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고객들에게 ESG 경영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지지해줄 것을 요구한다. 소비자와 기업이 동시에 ESG를 위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간다면 장기적으로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환경 운동은 환경 운동가만의 책임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기업도 ESG 경영에 동참해야 한다.

Discussion Question

팬시와 핑크 모두 기후 변화의 위험을 감지하고 있다. 효율적인 환경 보호를 위해서 기업의 ESG 경영 정책은 유지되어야 할까?

사진 출처: C-Suite Spotlight (Larry Fink), Business of Business (Tariq Fancy)



기업들이 택한 전략
ESG 경영

카드뉴스 보러가기
(이미지 클릭)

그린워싱

(Greenwashing):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

Discussion

개인 수준의 환경 운동이 기후 변화를 저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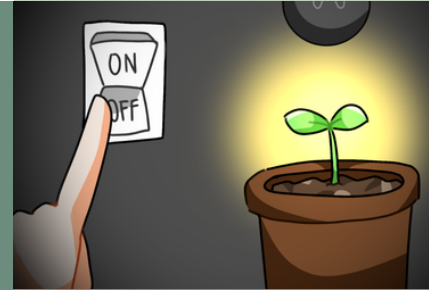


사진 출처: 위즈덤아고라 문지민

Towards Collective Action

UN에 의하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분의 2가 가정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개인 수준의 환경 운동은 즉각적인 효능을 발휘하지 않더라도 집단 운동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환경에 유의미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Save Energy
석탄, 석유, 가스로 생산되는 가정 에너지 전환하기



Transportation
불필요한 비행기, 자가용 탑승 줄이고, 대중교통과 전기차 사용




Eating
과도한 육류와 유제품 섭취 줄이기



Speak up
주변인들에게 환경 운동 동참 장려하기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운동

2000년대 초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정책 수용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제로웨이스트 운동은 우리나라에도 친환경 소비의 하나의 형태로 자리 잡았다. 이른바 '제로웨이스트' 운동의 대두는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텀블러와 에코백 소비를 증가시켰다.



윤리적 소비의 실천방안

위즈덤아고라 2기 박주미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는 화장품과 옷을 소비하고, 친환경 마크가 붙은 제품들을 구입해서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의 행동 방법을 제시한다.

리바운드(Rebound)효과

다회용품은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일회용품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텀블러의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일회용 컵의 최대 30배이다. 따라서 유리 텀블러는 최소 15번, 플라스틱은 17번, 세라믹은 39번 이상, 에코백은 최소 131번 이상 사용을 해야 환경에 유의미하다. 친환경적이라고 생각되는 종이봉투 역시 최소 3번 이상 사용해야 하며, 덴마크 환경식품부는 일반 면 재질의 에코백을 7,100번 이상 사용해야만 친환경적이라는 연구도 발표했다.

Discussion Question

우리는 어떻게 개인 수준의 환경 운동 부작용을 줄이고, 사람들의 동참을 독려할 수 있을까?

기후변화는 지구의 생태계와 인류의 삶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는 전 세계의 협력으로만 풀어갈 수 있는 최대 난제이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는 극명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기후변화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으나, 해결 과정에 대한 간극을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진국



선진국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은 친환경 산업과 에너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자 국제 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을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술과 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실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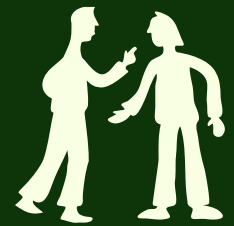
2003-2021
이산화탄소 배출량
OECD < Non OECD



이산화탄소 배출량
OECD > Non OECD
All Time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 방식이 불합리한 규제라는 의견을 피력하며, 선진국의 산업화로 인해 가속화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사려 깊은 대처를 요구한다.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선진국이 누려왔던 발전이 환경에 대한 부주의에서 나왔음을 인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개발도상국이 발전을 추구하면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무시하기는 어렵지만, 산업혁명 시기부터 선진국이 배출해온 온실가스 누적치와 비교한다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할 뿐임을 강조하고 있다.

개도국



Discussion Ques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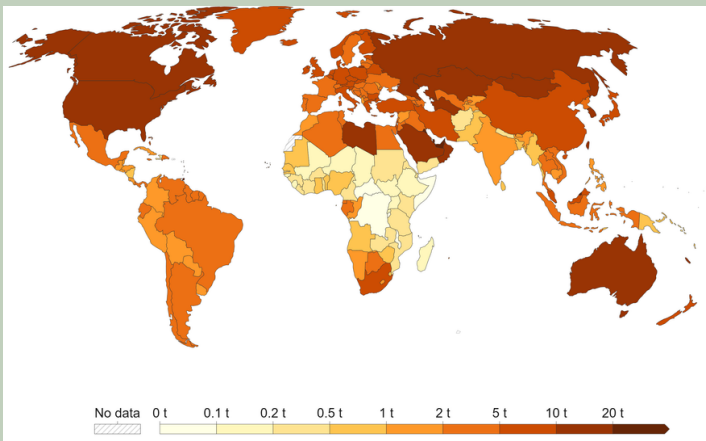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분명한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어떤 식의 의견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까?



강대국 싸움에 기후변화 취약국 등 터진다?

지구에 치명타를 날리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를 좁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 직격탄을 맞는 곳은 기후위기 문제를 초래한 선진국도,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개발도상국도 아니다. 아파하는 지구와 함께 신음하는 이들은 바로 '기후변화 취약국(Climate Vulnerable Countries)'이다.

유엔 재해 위험 감소 사무국(UNDDR)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횟수는 3,751건이고 이 중 약 91%가 기후변화 취약국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재해가 낳은 경제적 손실은 약 2조 908억 달러에 이른다. 2021년 기준, 기후취약국포럼(CVF) 58개 회원국이 배출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총 배출량의 20%에 불과하기에 악화하는 기후 환경에 대응할 능력이 부족한 기후변화 취약국에 집중되는 기후위기 피해는 불공평하다고 볼 수 있다.



출처: Our World in Data

2021 CO₂ Emissions

2021 이산화탄소 배출량

Distribution of Climate Vulnerable Countries

기후변화취약국 분포도



출처: 기후취약국포럼(CVF)

Discussion Question

국제 사회는 기후위기 직격탄을 맞고 있는 기후변화 취약국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사진을 클릭하면 카드뉴스로, 기사 타이틀을 클릭하면 기사로 이동합니다.



기후변화 지켜보고만 있을까?

기사: 5기 황시후 기자 / 카드뉴스: 5기 정준희 에디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탄소중립에 힘쓰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해서 탄소중립정책을 논하고 있다. 튜베리는 세계 정상들에게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그러나 개개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며, 필요한 실태이다.



세계를 위협하는 기후위기의 대처방안

기사: 4기 권서현 기자 / 카드뉴스: 4기 박지윤 에디터

기업 차원에서는 효율적인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성화하고, 개인 차원에서는 재사용을 위한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참여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공동 목표를 이뤄야 한다. 모든 기후위기 대응은 민주주의, 정의, 합리의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기후 변화가 감염병을 확산한다?

기사: 4기 서유현 기자 / 카드뉴스: 4기 김가은 에디터

기상 이변 현상으로 동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인간 질병이 악화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바이러스와 세균의 활동성이 촉진되고, 인간은 감염에 취약해진다. 기후 변화가 촉진될수록 더 심각한 질병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Relevant Articles:

Climate Change in Everyday Life

SUYEON PARK
위즈덤아고라 5기
마케팅 인턴

사진을 클릭하면 카드뉴스로, 기사 타이틀을 클릭하면 기사로 이동합니다.



방치되고 있는 환경 오염의 주범: 음식물 쓰레기

기사: 4기 서유현, 정연우 기자 / 카드뉴스: 4기 남택관 에디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탄소중립에 힘쓰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해서 탄소중립정책을 논하고 있다. 튜베리는 세계 정상들에게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그러나 개개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며, 필요한 실태이다.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사: 2기 하선경 기자 / 카드뉴스: 2기 박주미 에디터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시장의 큰 타격이 주어질 것으로 보이며, 침수된 군사 기지 또한 많은 수리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 등의 노력과 그에 따른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EU, 환경 오염의 주범 패스트패션 규제에 나섰다

기사: 4기 이하나, 임서연 기자 / 카드뉴스: 4기 김현정 에디터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하는 패스트 패션은 패션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기를 얻었지만, 지속 가능한 제품의 생산을 위해 규제되고 있다. 또한, 각국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 방안을 차차 적용해나가고 있다.



시리아 내전의 원인은 기후위기?

기사: 손유진 기자(멘토)

세계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기후 변화는 050년까지 약 1억 4천만 명의 기후 난민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들은 누려온 혜택에 대한 양보를 해야 하고, 세계는 GDP보다 지속 발전 가능성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

Climate Change 1

이강렬. "두 해나 호주를 덮친 산불, 피해와 영향을 알아보자". 소방방재신문, 2021년 4월 20일, <https://www.fpn119.co.kr/155824>. 2023년 4월 23일 접속.

이정아. "[포토] 60년 만의 폭우로 수백명 숨진 '더반'... 하늘엔 처연한 무지개가". 한겨레, 2022년 4월 14일,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ka/1038872.html>. 2023년 4월 23일 접속.

최태영. "기후변화, 얼마나 다가왔을까요?". 그린피스, 2022년 1월 12일,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20976/blog-ce-the-reality-of-the-climate-crisis/>. 2023년 4월 23일 접속.

Climate Change 2

기상청. "2023년 여름 기후전망". 기상청, 2023년 2월 23일, https://devweather.kma.go.kr/w/repository/xml/fct/mon/fct_ssn_20230601.pdf. 2023년 4월 23일 접속.

기상청. "2022년 이상기후 보고서". 기상청, 2023년 3월 30일,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40408&call_from=rsslink. 2023년 4월 23일 접속.

서울인포그래픽스. "2022년 8월 집중호우, 서울시의 강우량과 피해 특성은?". 서울특별시, 2022.08.29, <https://www.si.re.kr/node/66289>. 2023년 4월 23일 접속.

진 맥켄지. "폭우: 115년 만의 기록적 비... 원인과 대책은?". BBC NEWS 코리아, 2022년 8월 9일, <https://www.bbc.com/korean/news-62474812>. 2023년 4월 23일 접속.

최동민. "오늘(25일) 서울 벚꽃 개화". 한국방송뉴스, 2023.03.26, <http://www.ikbn.news/mobile/article.html?no=158495>. 2023년 4월 23일 접속.

All about the Climate Change 1

기후적응과.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 환경부, 2023.

All about the Climate Change 2

Alan Buis. "A Degree of Concern: Why Global Temperatures Matter". *NASA Global Climate Change: Vital Signs of the Planet*, 30 Oct 2021. <https://climate.nasa.gov/news/2865/a-degree-of-concern-why-global-temperatures-matter/>. accessed 23 Apr 2023.

Rebecca Lindsey and Luann Dhalman. "Climate Change: Global Temperature". *Climate Government*, 18 Jan 2023. <https://www.climate.gov/news-features/understanding-climate/climate-change-global-temperature>. accessed 23 Apr 2023.

Global Responses 1, 2

환경부. "유엔 지속가능 발전목표".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ksdgs?content=1>. 2023년 4월 23일 접속.

United Nations. "The Paris Agreement".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the-paris-agreement>. accessed 23 Apr 2023.

Global Responses 3

김아현. "ESG 경영 우수 사례로 알아보는 스타벅스 친환경 마케팅". 어센트코리아, 2022년 9월 23일, Ascentkorea, <https://www.ascentkorea.com/the-business-case-for-esg/>. 2023년 4월 23일 접속.

임지훈. "친환경 소비시대, 부상하는 그린슈머를 공략하라!". 한국무역협회, 2022년 4월 25일, [https://www.kita.net/cmmrclnfo/internationalTradeStudies/researchReport/focusBriefDetail.do?pageIndex=1&no=2285&classification=5&searchReqType=detail&pcRadio=&searchClassification=&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continent_nm=&continent_cd=&country_nm=&country_cd=\\$or_nm=\\$or_cd=&itemCd_nm=&itemCd_cd=&searchOpenYn=](https://www.kita.net/cmmrclnfo/internationalTradeStudies/researchReport/focusBriefDetail.do?pageIndex=1&no=2285&classification=5&searchReqType=detail&pcRadio=&searchClassification=&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continent_nm=&continent_cd=&country_nm=&country_cd=$or_nm=$or_cd=&itemCd_nm=&itemCd_cd=&searchOpenYn=). 2023년 4월 23일 접속.

Global Responses 4

엄지혜. "[ESG 칼럼] 지구를 지키는 19가지 방법". *HDEC Newsroom*. 2021년 4월 22일, https://www.hdec.kr/kr/newsroom/news_view.aspx?NewsSeq=240&NewsType=FUTURE&NewsListType=news_clist#.ZDvwaXZByUk. 2023년 4월 23일 접속.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포인트".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주메뉴, https://www.cpoint.or.kr/netzero/site/cntnts/CNTNTS_001.do. 2023년 4월 23일 접속.

Discussion 1

Larry Fink, "The Power of Capitalism". *Blackrock*, 2022. <https://www.blackrock.com/corporate/investor-relations/larry-fink-ceo-letter>. accessed 23 Apr 2023.

Lori Butterfield, "Tariq Fancy on Why We Need to Pull the Moral Cloak of Responsibility Away from Business". *Stanford University*, 23 Feb 2023. <https://casi.stanford.edu/news/tariq-fancy-why-we-need-pull-moral-cloak-responsibility-away-business>. accessed 23 Apr 2023.

Discussion 2

한국환경공단. "환경에 득이 아닌 '독' 리바운드 효과 알아보기". 네이버 포스트, 2021년 8월 31일.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274733&memberNo=6928292>. accessed 23 Apr 2023.

United Nations. "Start with These Ten Actions!". Act Now. <https://www.un.org/en/actnow/ten-actions#unplug>. accessed 23 Apr 2023.

Discussion 3, 4

안혜민. "[마부작침] 선진국 vs 개도국, 기후위기 책임은 어디에?". SBS 뉴스, 2022년 5월 28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64931&plink=COPYPASTE&cooper=SBNEWSSEND. accessed 23 Apr 2023.

Hannah Ritchie and Max Roser. "CO2 emissions".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co2-emissions>. accessed 23 Apr 2023.



사진 출처: 위즈덤아고라 차유진



모든 배너와 아이콘 클릭 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Visit us, Wisdom Agora



Contact us

Website: wisdomagora.com

Instagram: [@wisdomagora](https://www.instagram.com/wisdomagora)

Email: wisdomagorauae@gmail.com

Youtube: www.youtube.com/@wisdomagora4941

